

## 혼미노시/미노 일본 종이 도구 박물관 후쿠베

미노 일본 종이 도구 박물관 후쿠베는 미노 지방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시설로서, 아동 수의 감소를 이유로 2002년에 폐교한 구 가타치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201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. 와시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와 지역의 농업·양잠에 사용하는 도구를 전시하고 있는 외에도 전후 농가의 몇몇 방을 재현하여 미노의 농민과 장인의 생활을 접할 수 있습니다. 박물관 내에는 물레방아, 솥돌, 정미기 등 요즘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 전시되어 있어 예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

구 가타치 초등학교 건물 1층과 2층이 박물관입니다. 1층에는 와시 제작용 도구가 일부 전시되어 있으며, 1층 견학은 무료입니다. 와시 제작에 관한 옛 사진이나 에도 시대(1603~1867년) 그림의 복제품을 보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제법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2층에 있는 네 전시실 관람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. 와시 제작용 도구와 역사적인 사진, 농기구, 재현된 1930년대 농가의 일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와시 제작에 사용된 여러 도구를 보면,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 사람 대부분이 와시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다이얼식 전화기와 테이프 리코더, 레코드 플레이어, 카메라 등 20세기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도 있습니다. 이 전시품들은 방문자에 따라서는 그림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

미노 일본 종이 도구 박물관 후쿠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관합니다(화요일은 휴관). 자원봉사자가 전시품 설명도 하고 있으며(일본어),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예전에 와시 장인이었던 분도 있습니다.